

동해시, 가정용 감량기 구입 지원 시범사업 추진

동해시가 '2026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민이 직접 감량·처리하도록 지원해 배출량 자체를 줄이고 처리비용 절감과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 종량제 운영, 분리배출 홍보, 감량 캠페인 등 기존 시책과 연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단계 감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6년 1월 27일) 기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며,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00대(세대당 1대)로, 구매 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제품은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가열·건조·발효 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 한한다. 하수관로 막힘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 방식 음식물 처리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해시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2주 이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은 교부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매 영수증과 설치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창군, 2026년 군민 안전 보험 가입 완료

평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민 안전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군은 매년 단위로 갱신 가입하고 있다.

군민 안전 보험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평창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일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한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이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보장 항목은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를 포함해 총 29개 항목이며, 보장 금액은 최고 3천만 원이다.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와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본인(사망 시 유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해야 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연어 산업의 메카 강원, "아시아 최대 연어 산업 키운다"

총사업비 60억 원 투입해 K-어린연어생산센터 준공

2040년까지 연어 생산 5만 톤 달성 등 K-연어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형 K-연어 생태계 조성의 첫 단계로 2월 26일(목) 10시 10분, 도내 수면자원센터에서 'K-어린연어생산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해수부, 관련 단체,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K-연어산업 비전과 본격 가동계획을 발표했다.

K-어린연어생산센터는 총사업비 60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 3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건립됐다.

센터는 연면적 1,599㎡, 지상 2층 규모로 순환여과시스템 7개 모듈 사

육조 30개, 부하실, 실험실, 분석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56급 연어 종자 200만 마리 생산이 가능하다.

도는 센터에서 생산한 건강한 연어 종자를 도내 내수면 양식어가에 공급하고 양식어가는 이를 100급 수몰트로 성장시킨 뒤, 해수양식 산업 단지에서 5kg급 성어로 키워 최종 출하하는 단계별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구용 발안란을 도입, 담수에서 부화율 97% 이상을 달성하고 2023년 어린연어(150g급) 생산에 성공했다.

이 가운데 2천 마리를 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고성)로 옮겨 해수에서 5~8kg 상품어로 성장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연어 수정란 부화여 관리방법 등 특허 4건을 출원·등록하는 등 어린연어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이날, 도는 이날 강원에서 세계로, 글로벌 연어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K-연어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K-연어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2035년까지 연어 전·후방 육성 및 산업고도화, ▲2040년까지 K-연어 브랜드화, 연어산업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2040년까지 연어 생산 5만 톤 달성과 아시아 최대 생산지로 성장시켜 글로벌 블루푸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도의 7대 미래산업 가운데 연어산업이 다섯 번째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생애 주기처럼, 연어 산업 역시 처음에는 공공이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양식업 종사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기적 협업구조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원주만두축제, 'K-브랜드 어워즈' 연속 수상



원주만두축제가 'K-브랜드 어워즈'에서 지난해와 올해, 2회 연속으로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원주만두축제가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브랜드 콘텐츠로서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주만두축제는 지역 재래시장의 전통 음식인 '만두'를 중심으로 그 탄생

배경과 의미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축제 공간으로 확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참여를 동시에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만두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체험 콘텐츠를 통해 음식문화와 공연·예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축제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상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 방식을 정착시킨 점이 연속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원주시는 원주만두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도시브랜드로 더욱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원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춘천시 기업현장 직접 찾아 맞춤형 기업지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3월부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찾아가는 기업간담회와 맞춤형 기업지원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업 애로사항을 유형화·분석화해 체감도 높은 기업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내년도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경제단체를 직접 찾아 기업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애로와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한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간

담회 결과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원스톱 상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상담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코트라(KOTRA),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문 상담 인력을 구성해 기업별도 상황에 맞춘 실질적 상담회를 운영한다.

성기문 기업지원과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초시, 2026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개최

2026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속초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속초시는 정월대보름인 3월 3일 속초문화원과 함께 속초해변 남문 주차장에서 '2026 정월대보름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달집태우기를 비롯해 연 만들기, 부럼 깨기, 소원지 쓰기, 가훈 써주기, 액막이 인형 만들기, 떡메치기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동행 민속경연대회를 통해 제기차기와 고무신 던지기, 윷놀이, 투호, 팽이놀이, 비석치기, 딱지치기 등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속초도문농요보존회와 속초사자놀이보존회가 참여하는 전통문화 공연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사에는 속초시 8개 동을 비롯해 금강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속초신용협동조합, 속초·고성·양양여성기업인협회, (354-E지구) 9지역 라이온스클럽, 속초청년회의소, 속

초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기관·단체가 참여해 지역 상생과 공동체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오전에는 속초시 일원에서 '2026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가 펼쳐진다.

속초시와 속초사자놀이보존회가 개최하는 지신밟기는 지역공동체의 번영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전통 세시풍속으로 속초사자놀이와 함께 이어져 오고 있다.

'속초사자놀이'는 함경남도 북청군 일대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던 마을 걸립(乞粒) 전통을 계승한 이복 실향민의 놀이 문화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중한 국가유산이다.

지신밟기는 오전 9시 30분 속초시청에서 진행되는 마당놀이와 걸립을 시작으로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청호동 행정복지센터, 청호동 경로당, 아트플랫폼 갯배 등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장소로 순회하며 액운 퇴치와 시민의 번영, 행복을 기원할 예정이다.

영월군, 시골 라이프 마켓 '영월 쪼매장' 셀러 및 창작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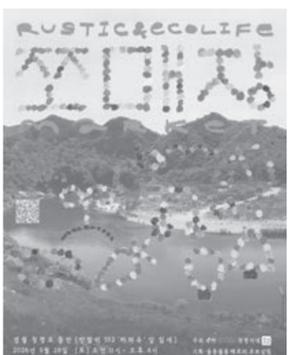
3월 28일 청령포 강변서 첫 장터 개최

영월군은 오는 3월 28일(토) 영월 청령포 강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회 '영월 쪼매장' 마켓의 주인공이 될 셀러와 창작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월 쪼매장'은 '뉘다의 방언인 '쪼매다'와 '아주 작다'는 뜻의 '쪼매하다'를 결합한 명칭으로, 영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작은 시골 마켓을 의미한다.

이번 마켓은 'Rustic & Eco Life(촌스럽고 무해한 시골 라이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월 청령포 강변(장림리 522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어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Next Local)' 참여 기업인 울릉불통 팩토리(대표 조찬희)와 영월 지역 청년 창업팀 추보삼림(대표 박태호)이 기획과 추진을 맡았다. 이와 함



께 영월의 청년 창업자들이 협력하여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이고 유틸 있는 시골 생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영월에서 활동 중이거나, 영월에서의 마케팅 및 활동을 희망하는 셀러와 창작자라면 누구나 신

청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직접 기획·제작한 상품이나 서비스, 콘텐츠를 보유한 F&B, 농림어업 생산물, 수공예품,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전 분야를 아우른다.

접수 기간은 3월 4일(수) 오후 5시까지이며, 모집 규모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 검토를 거쳐 3월 5일 영월군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영월군은 이번 쪼매장을 시작으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제59회 단종문화제 기간 동안 활동형 청년 셀러 모집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군은 연이은 마켓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판로와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활력 있는 청년 경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소통과 공능, 신뢰받는 세종 특별자치시의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세종시의의회는 승풍파랑의 기세로 시민을 위한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 바람을 타고 물결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
SEJONG CITY COUNCIL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